국제적인 도서 및 문예작품현상응모조직위원회 공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75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5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국제적인 도서 및 문예작품현상응모가 12월 24일까지 진행되였다.

현상응모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 5년간 백두산위인들을 칭송하고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여 세계 각국의 수많은 정계, 사회계, 개별적인사들이 집필발행하여 보내여온 수십종의 도서들과 백수십여편의 문예작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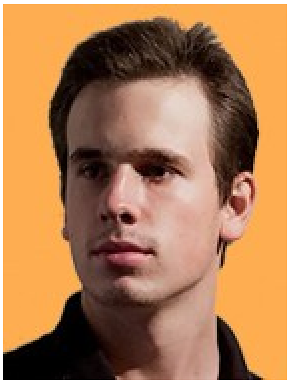
현상응모에는 다음의 작품들이 당선되였다.

도 서 부 문



《인민사랑의 태양》

웨뽀르 뻬뜨로브 (로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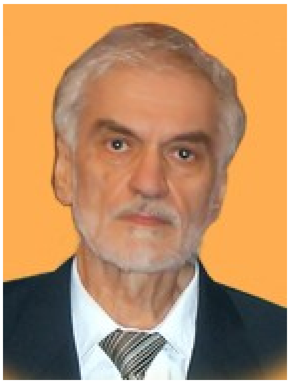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수령신뢰에 대한 옳바른 리해》

위딸리 레베제브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민교육 개요》

쎄르게이 제뱌띄흐(벨라루씨)



《류례없는 70년》

라브렌찌 구르드쥐예브 (로씨야)



《위대한 계승》

더모트 하드슨(영국)



《김정은시대의 조선》

이리나 말렌꼬(아일랜드)



《조선통일, 세계의 념원》

자베드 안싸리(파키스탄)



《김정은정치의 오늘》
나다 다까시(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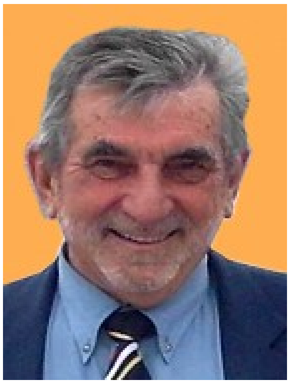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쥬까리 바티스트(프랑스)



《선군인터나쇼날》
엠 자한기르 칸(방글라데슈)



《서방예술가의 눈으로 본 조선》
아다모스 까찬로니스(끼쁘로스)



《승리-사회주의조선의 전통》
레이몬드 퍼그손(오스트랄리아)



《조선의 대답》
에스뚜아르도 마르띠네스(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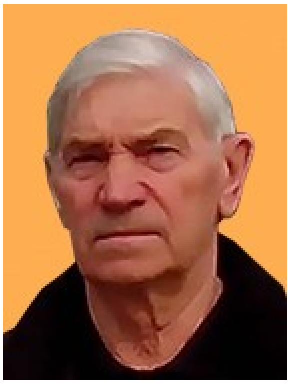
《새로운 시각으로 본 조선》
유리 까스뜨로 로메로(뻬루)



《평양-가서 보시라》
마리아 비에이라 데 모라이스(브라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승리한 사회주의》
쑤렌드라 라즈 고싸이(네팔)



《주체사상을 믿음직하게 계승하시여》
씌쵸브 울라지미르(로씨야)



《동방조선에서 10일간》
카이사르 아흐메드(방글라데슈)



방문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뻬루인의 이야기》 아브라함 리뚜마(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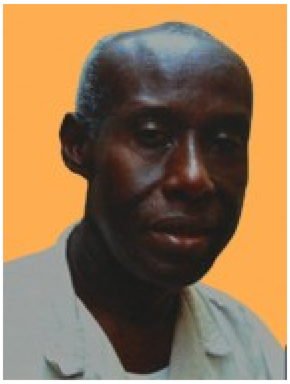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다》 나딸리아 벨로꼬삐또바(로씨야)

시 부 문



시집 《동방의 빛나는 나라》

유디 까떼 깜뽀스(뻬루)



시집 《선군의 발걸음따라》

아브둘라이에 디알로(기네)



시집《태양절은 세기를 이어 계속된다》

류드밀라 아브제예바(로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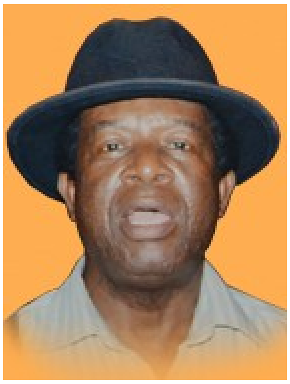
시《김정일동지께 경의를 드립니다》
로자니따 깜뽀스(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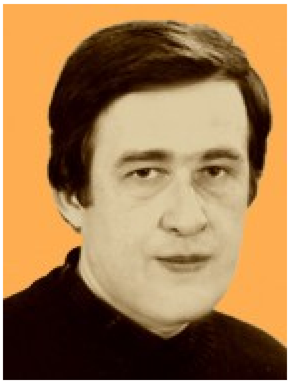
시《동방의 붉은 폭풍》
호르헤 루이스 우베르딸리 (아르헨띠나)



시《락원》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에스빠냐)



가사 《김정은원수찬가》
루이 앙드레 느 고마 (콩고)



시 《주체의 태양은 영원하리》
올레그 나우모브 (로씨야)

시집 《윁남의 추억》 윈 씨 티엣 (윁남)

서사시집 《김정은; 지도자》 제프리 에이. 로드(미국)

이번 현상응모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인사들은 적극적인 문필활동으로 백두산위인들을 높이 칭송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국제사회에 널리 소개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현상응모조직위원회는 각국의 인사들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백두산위인들을 칭송하고 조선을 소개하는 훌륭한 도서들과 문예작품들을 더 많이 집필하고 발행보급하리라는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현상응모

를 관심하여준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현상응모에 당선된 인사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한다.

국제적인 도서 및 문예작품현상응모조직위원회

주체 106(2017)년 12월 25일

평 양